

심리진단검사에 의한 비교문화적 성격 연구

- 82 한국마칼루 학술원 정대에 참여한 셸파의 성격 연구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이 근 후 · 박 영 숙

= ABSTRACT =

A Cross-cultural Personality Study by the Psychological Tests

- A Personality Study of Sherpa Who Participated
in The 82 Korean Makalu Expedition -

Kun Hoo RHEE, M. D., Young Sook PARK, M. A.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cross-cultural study was purposed to compare with the differential cultural groups' personality by the psychological tests and to detect the effects and the problems of the psychological tests used to the cross-cultural study.

The psychological tests used in this study were Minnesota Multiphatic Personality Inventory, Rorschach test and Draw-A-Person tes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welve sherpa who participated in The 82 Korean Makalu Expedition.

The conclusion was dependent upon the way by which the responses of subjects were analyzed and interpreted as a whole and the way by which every personal test was personally interpreted.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ed.

The effect of the psychological tests appeared positively by the following particular responses. The results of MMPI were the severe increase of F scale, the moderate increase of 8,6 scales, and the mild increase of 1,5,3,4,9 scales. At the Rorschach test, lower systematic, immature and concrete cognitive operations appeared. Affect was geneareally repressed, and the need system and the need control were also low. It was suggested that the content analysis might be useful to explore the different personality traits between the cultural groups since the contents of the Rorschach test were conspicuously differential. The

particular drawings of DAP were interestingly impressive and revealed the differential cultural groups' personality.

The following tasks were proposed to be prepared for other cross-cultural study.

1. In parallel with the psychological tests, sociological study would be useful to explore the differences between cultural groups.
2. In order to valid and effective psychological test result, the standardization of tests and the performance of battery test should be satisfied.
3. Personal interview, dreams, and behavioral assessment would complement the psychological test results.
4. More appropriate cross-cultural personality tests should be developed for further cross-cultural personality studies.

서 론

적응(adaptation)은 생존을 위한 기본조건이며 인간은 다양한 인간조건의 국면들에 따라 반응하며 문화적 환경에 따라 반응한다. 인간은 공동의 적응목표들을 가지고 있으며 적응과정에서 획득된 행동특성, 문화양상에 의해 적응을 성취하는 독특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른 문화양식을 지닌 집단들에 있어서 행동차이가 있게 되며, 이는 개인의 지속적인 행동 경향성, 성향(disposition)으로 내재화 된다¹⁾.

Kluckhohn과 Murray²⁾는 개인의 행동 변이성이 모든 개인들과 동일한 수준, 일부 개인들과 동일한 수준, 어떤 다른 개인과도 동일하지 않은 수준에서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의 성격과 행동연구는 생리사회적, 심리적 보편성, 개인차, 그리고 문화와 성격의 상관관계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³⁾.

문화와 성격연구는 인류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정신의학자에 따라 관심영역과 이론적 개념, 연구방법을 달리하여 왔다. Levine²⁾은 문화와 성격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반문화와 성격개념(anti-culture-personality positions), 심리학적 환원주의, 성격과 문화의 동등개념, 성격의 중개개념, 성격과 문화의 두체제 개념으로 구별하였다.

반문화와 성격개념은²⁾ 사회적 행동은 사회적 생존의 목표아래 개인의 지속적 성향과는 관계없이 사회제도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상황적 압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입장에서 대단위 제도적 체제와 과정에 관심을 두는 사회학자, 사회학적 인류학자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symbolic interactionist)의 사회학적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성격과 문화의

상호관계는 반박된다.

심리학적 환원주의²⁾ Freud의 영향을 받은 정신분석적 인류학적 접근으로 G. Roheim, D. C. McClelland에 의해 개인의 성격발달은 보편적 현상이며 정신성적 성격발달이 모든 문화에서의 행동을 결정하는 독립적 원인으로 생각되어졌다. 임상적 작업에서 발견되는 무의식적 의미는 모든 문화상황에 적용될 수 있으며 한 문화의 신념체계는 개인의 발달양식의 직접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성격과 문화의 동일개념은²⁾ K. Benedict, M. Mead에 의해 주장되었다. 각 문화는 한 사회의 중심적인 조직으로 한 문화의 전체 디자인, 대표적 형태에 따라 성격이 형성되므로 성격은 문화의 반영이며 성격발달은 세대간 문화 전달에 따라 형성된다.

성격 중개개념은²⁾ 정신분석학자 A. Kardiner, 인류학자 R. Linton에 뒤이어 W. M. Whiting, I. L. Child에 의해 세워졌다. 문화는 성격을 결정하는 문화와 성격을 반영하는 문화로 구별되고 제도화된 사회생태, 경제, 사회정치적 체계는 성격발달에 영향을 주고 집단의 존속을 유지하므로 육아양식 및 사회화는 집단의 적응목구에 따라 개인의 성격을 형성한다. 반면 사회화된 공통분모적 성격의 욕구에 따라 종교, 예술, 민속이 형성된다. 이와같이 한 문화의 “전형적 성격”은 이러한 두 문화영역을 중개하고 통합한다. 한 사회의 개인들은 사회경제적 요구와 성숙하는 유기체로서의 개인의 욕구 사이에 타협을 하며 종교, 예술과 같은 표현적 제도에서 표준적 체제를 만들며 이를 유지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한다.

Inkels와 Levinson²⁾은 성격과 문화가 상호작용하는 두 체제이며 상호의존적 부분으로 구성되고 상호

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성격과 문화의 두 체계개념을 발전시켰다. 성격체계는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회문화적 체계는 역할수행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수행에 필요조건이다. 두 체계의 상호작용의 안정은 개인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사회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 수행의 표준에 따라 두 체계의 필요조건이 기능적으로 통합되었을때 성취된다. 성격과 문화사이의 기능적 일치는 사회 존속을 위해 필요하므로 사회화에 의해 제공되어지며 성격특징에 영향을 준다. 이와같은 기능적 일치는 문화에 의해 유도되거나 성격에 의해 유도된 불일치에 의해 무너지고 이에 따라 새로운 기능적 일치가 요구된다.

문화와 성격연구는 이와같은 이론적 개념에 따라 정신분석적 임상관찰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 학습이론에 따른 실험적 방법, 심리학적 평가방법이 사용되어졌다⁴⁾. 심리진단검사를 통한 심리학적 평가의 문화와 성격연구는 성격체계와 문화의 두 체계사이의 상용관계 일치점을 밝히기 위해 문화의 분석과 별도로 개인의 성격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표집된 개인들에 대한 심리검사가 실시되며, 성격의 일면을 진단하려는 다양한 심리검사들이 사용되어졌다. 최근 성격기능의 보다 깊은 측면을 진단하기 위한 투사적 검사(projective test)가 사용되고 있다. 이중 로샤검사(Rorschach test)는 정신병리의 문제와 연관되어, 주제통각검사(Thematic Apperception test)는 독특한 문화적 대인관계 방식이나 성격 경향성을 진단하는데 사용된다⁵⁾.

Kolb⁶⁾는 문화와 성격연구는 정신건강의 보다 명확한 개념을 세우고 다양한 자녀양육방식과 성격발달의 관계를 파악하고 정신장애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본 논문은 성격과 문화의 상호관계를 성격진단검사를 통하여 밝히기 위한 비교문화적 성격연구로 시도되었으며 비교문화적 성격연구를 위한 심리진단검사실시상의 문제점을 발견·검토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방법

본 논문의 피검사 대상은 셀파 12 명이며 이들은 1982년 2월 10일부터 동년 6월 20일까지 82 한국 마카루 학술원정에 참여하였던 전원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심리진단검사 종류는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 로샤검사(Rorschach test), 인물화검사(Draw-A-Person test, DAP) 등 세가지 검사였다.

MMPI는 네팔국어로 번역되어 실시는 개별적으로

MMPI 검사요강에 따라 실시되었고 소점의 평균, 표준편차, T점수의 평균이 환산되었다⁷⁾.

로샤검사는 개별적으로 Exner⁸⁾의 종합방식에 따라 실시되었고 반응결과 역시 Exner 방식에 따라 분류, 채점되었고 각 반응들의 빈도의 평균, 비율, 점수가 구해졌다.

인물화검사는 Levy⁹⁾의 투사적 방식에 따라 실시, 분류, 해석되었다.

심리진단검사 실시 상황은 개별검사를 위한 안정되고 통제된 조건이 유의되어졌다.

피검사자의 일반적 배경을 보면 평균 연령은 29.8세이며, 학력은 무학과 국졸이 80% 이상이며 나머지는 중졸의 교육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종교는 80% 이상이 불교였으며 나머지는 종교가 없었다. 직업은 전원이 등반대의 셀파였다.

결 과

MMPI의 소점과 평균, 표준편차 및 T점수의 평균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타당도척도 F는 T점수가 76이며 L 척도 및 K 척도는 각각 51.8과 53.2로서 L, F, K 척도를 종합하면 A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상척도는 1, 5, 6, 8 척도가 상승되어 있다. 즉 1 척도 심기증척도(Hypochondriasis Scale, HS), 5 척도 남성성-여성성 척도(Masculinity-Femininity scale, Mf), 6 척도 편집증척도(Paranoia scale, Pa), 8 척도 정신분열증척도(Schizophrenia scale, Sc) 등 네척도가 높으며 이중에서 정신증과 연관되는 6, 8 척도가 상승되고 있다. 의미있게 낮은 임상척도는 없으며, 2, 3, 4, 7, 9, 10 척도가 정상범위에 있으며 이중에서 2 척도 우울증척도(Depression scale, D)가 가장 낮다. 이상과 같이 임상척도에서 T점수 70 이상되는 척도는 없으며 1, 5, 6, 8 척도가 60 점 이상으로 상승되어 있다.

MMPI 결과를 개별적으로 재분석할 때 T점수 70 이상 상승된 척도가 하나이상 나타나는 비율은 10/12이었으며, F 척도, 망상증척도, 정신분열증척도 순위로 빈번한 상승을 보였다.

Exner 방식으로 분류되고 채점된 로샤결과는 Exner의 표준집단의 자료⁸⁾와 비교되어 표 2에 제시되고 있다.

표 3은 본 연구대상자의 로샤반응을 Exner⁸⁾의 체계적 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Exner의 표준집단내에서 비정신장애자집단의 체계적 반응과 비교하였다.

표 4는 본 연구대상자의 로사반응을 반응내용으로 분류한 결과이다.

표 2와 표 3에서 전체반응들의 빈도 및 비율, 점수가 표준집단의 자료와 단순 비교되고 있다.

표 2에서 전체반응수 R은 표준집단과 동일한 수준이며 정상범위에 있다.

표 2에서 위치반응을 보면 W : D : Dd에서 W 반응이 낮고 Dd 반응이 증가되고 D 반응은 표준집단과 비슷한 수준이며 S 반응은 표준집단의 반응빈도가 제시되지 않아 비교되지 못하였다.

표 3에서 위치반응의 발달수준, 조직활동(organizational activity) Z, 형태의 질적수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치반응의 발달수준은 발달수준이 양호한 +, O 반응이 44.5%, 발달수준이 불충분한 V, - 반응이 55.5%였다. 따라서 낮은 발달수준이 높은 발달수준보다 증가되어 있다.

조직활동 Z 비율은 기대되는 정상범위, 즉 전체반응의 1/3 범위에 있으며 Zd가 의미있는 수준 -3.0에는 미치지 않지만 -1.75로서 -범위내에 있다.

형태수준 F+ %는 70 이하이며 전체반응의 질적 평가를 나타내는 X+% 역시 70 이하이다.

평범반응 P 반응은 평균반응수 6보다 낮다(3.5). 표 2에서 반응결정인 F 반응, 운동반응 M, FM, m, 색채반응, 재질반응, 통경반응, 음영반응의 빈도를 표준집단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F 반응은 표준집단의 평균 9.2보다 높으며 L 비율 역시 1.60으로 높다.

운동반응에서 M, FM, m 반응이 모두 표준집단보다 낮게 나타나 있다. 특히 M 반응이 가장 낮으며 이 반응빈도는 1점이하이다. FM 반응이 M 반응보다 높게 반응되고 있다. 적극적인 움직임반응 a 반응과 소극적 움직임반응 p 반응의 비율은 62.5%로 a 반응이 높으나 M 반응의 a 반응과 p 반응의 비율 d는 50수준에 있다. 따라서 a, p 반응 비율은 정상범위에 있다.

색채반응에서 FC 반응이 낮으며 CF + C + Cn 반응은 보통수준에 있으며, 색채반응의 총합인 Sum C는 표준집단에 비해 낮다. C' + C'F + FC' 반응은 표준집단의 반응이 기록되지 않아 비교되지 않았다.

재질반응 T 반응은 TF 반응이 높고 T, TF, FT 반응의 합은 1.49이며 표준집단과 비슷한 수준이다.

통경반응 FV 반응은 높지 않으나 VF 반응은 약간 상승되고 있다.

Y 음영반응은 표준집단에 비해 높지 않다.

표 4에서 반응내용을 보면 동물반응의 비율 A %는 표준집단과 동일한 수준이며 H + Hd 반응은 낮다. 반응내용중 식물반응 Bt 반응이 높고 그 다음은 풍경반응 Ls 반응과 자연반응 Na 반응 순으로 높다. 반응내용의 범위 Cont는 6.25로 정상범위내에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비현실적 인간반응과 비현실적 동물반응 (H), (Hd), (A), (Ad) 반응이 높다는 것이다. 생명있는 인간과 동물 반응수의 약 1/4 빈도로 죽은 인간과 동물반응, 손상된 인간의 신체와 동물의 부분반응, 그리고 신이나 귀신과 같은 비인격적 반응과 동물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같은 반응이 개인반응 기록에 따라 증가되어 있거나 전혀 반응되지 않는 경향은 있지만 대체로 전체 반응의 특징적 경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물반응 역시 살아있는 식물반응이 아닌 고목반응이 높다. 반응내용에서 비슷한 범주에 속하는 식물, 자연, 풍경, 피, 불, 폭발반응이 반복되어 인간과 동물반응이 제외된 반응내용수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반응내용의 폭은 제한된다고 보여진다.

표 3에서 반응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본 결과 EA, ep 반응에서 Sum C가 M 보다 높으며 EA점수는 표준집단에 비해 낮으며 ep는 증가되어 있으며 ep가 EA에 비해 높게 반응되고 있다. 혼합반응 blends 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인물화검사는 Levy⁹⁾의 정신분석적 방식에 따라 1 그림의 크기 2 그림의 위치 3 인물의 동작 4 인물의 신체부분의 특징 5 전체 인물의 조화와 분위기 6 성별 인물의 특징이 검토되었다.

인물와의 크기는 종이 2/3를 기준으로 할 때 크게 그린 인물화는 5장, 작게 그린 인물화는 17장이었다. 남녀 성별에 따른 크기의 차이는 4장의 인물화에서 나타났다.

그림의 위치는 중앙위치 5장, 중앙상부위치 13장, 중앙우측위치 2장, 중앙하측위치 2장으로 중앙상부위치가 많았다.

인물의 동작은 팔과 발이 생략되어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5장, 활발한 움직임은 아니지만 팔, 다리에서 움직임이 표현되고 있는 경우 14장, 움직임이 거의 없는 수동적 자세로 나타나는 경우 3장이었다. 그러나 어떤 인물화에서도 활발한 동작이 생생하게 나타나게 전달되거나 과잉 동작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인물의 신체 특징에서 머리가 크고 강하게 그려진 인물화는 없었으며 대부분 머리와 얼굴의 표현이 부정확, 생략, 외곽되어 있었다. 머리와 머리칼, 눈썹, 눈, 눈

동자, 코, 입, 귀, 턱의 얼굴 부분들의 묘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표현된 인물화는 3장뿐이었고 19장의 인물화에서 눈동자 생략 14, 귀 생략 14, 눈섭과 턱의 생략, 그외 머리칼, 입이 생략되었으며 코의 생략은 없었다. 코는 생략된 인물화가 없는 대신 코가 강조된 인물화가 7장으로 신체의 강조부분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에 머리카락이 강조되었다. 머리카락은 위로 뺨친 머리카락으로 그려진 것이 13장이었다. 매우 특징적인 신체부분의 생략으로 턱이 생략되었는데 목부분과 턱을 구별하는 선이 그려진 인물화는 5장 뿐이었고, 나머지 17장에서는 턱과 목의 경계선이 생략되고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있다.

몸체는 9장의 그림에서 불완전하게 그려지고 있으며 몸체와 다리의 연결과 구별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거나 부자연스러웠다. 나머지 인물화에서는 몸체와 다리의 구별이 없었다. 팔은 16장의 인물화에서 그려지고 있으나 동체와 구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경계선이 자연스럽게 그려지지 않은 팔의 모습이었고 정확하고 자연스런 팔은 2장의 인물화에서만 그려지고 있다. 나머지는 팔이 생략되거나 동체와 팔과의 구별선이 그려지고 있다. 손은 7장의 인물화에서만 그려지고 손가락모양이 정확히 그려진 것은 한장의 인물화 뿐이나 그외는 손과 손가락이 경계가 없고 선으로 묘사되고 있다. 다리와 발의 생략은 비교적 적어 2개 그림에서 나타날 뿐이며 나머지는 다리와 발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리와 발이 희미하게 그려지거나 선으로 그려지거나 불안정하게 그려지고 있으며 안정된 정확한 다리는 4장의 그림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성과 직접 관련되는 신체부분이 8장의 인물화에서, 가슴, 생식기, 배꼽의 순위로 그려지고 있다.

옷은 5장의 그림에서만 불완전하게 묘사되고 나머지는 나체로 그려지고 있다. 단추는 5장의 그림중 3장의 그림에서 나타나고 그외 포켓, 벨타이등은 그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전체적 인물화가 크기가 적고 위치가 중앙상부에 있으며 비교적 동적인 표현을 하고 있으며 신체중 얼굴과 목, 몸, 팔, 손등의 부분에서 불완전하며 다리와 발이 생략되지는 않고 있으나 불안정하고 확실치 않다. 옷의 묘사는 드물며 발가벗은 나체의 모습에 성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의 전체 조화는 이상과 같이 불매 신체들의 생략, 외곽에 의해 불완전하며 부조화된 모습이다. 인물의 묘사는 동작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살아있는 생생한 모습이 아니라 동물과 같은 모습, 귀신과 같은 모습,

만화속의 인물과 같은 모습들이 대부분이다.

남녀 성별의 그림을 비교해보면 한 사례만이 여자가 먼저 그려졌고, 한 사례는 옆모습의 여자 인물이 그려지고 남녀의 묘사가 비슷하게 그려지고 있으나 한 그림에서만 남녀 성차이에 따른 인물의 크기가 두드러졌고 남자의 모습이 매우 크게 그려졌다. 10장의 그림에서 성의 구별이 없으며 6장의 그림은 신체부분으로 성이 구별되고 6장의 그림은 옷, 머리카락으로 구별되고 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인물화는 12벌중 8벌이 특징적 묘사에 따라 선택되어졌다(그림 I~VIII).

심리학적 진단검사의 개인사례별 해석

심리학적 진단검사는 개인의 성격을 기술하고 임상진단을 정하고 행동을 예측하는데 사용되어져 왔다. 본 논문의 심리학적 진단검사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제한점이 있다.

MMPI가 표준화과정없이 실시되고 해석되었기 때문에 진단의 기준이 제시될 수 없고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의 평가가 내려질 수 없다. 따라서 MMPI는 전체형태분석에 의한 보조적 진단자료로서 기대될 수 있을 따름이다. 인물화 검사는 정신병리에 대한 진단검사로서의 타당도는 인정되지만 보조적 자료로 주로 사용되어 심리적 부적응이 진단되는 검사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MMPI, 인물화검사는 진단검사로써 제한이 있다.

로샤검사는 개인의 성격과 임상진단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진단검사로 인정되어 왔으며 로샤검사의 무지해석(blind interpretation)의 가치와 효용성이 입증되어왔다. 무지해석이란 피검사자의 사회적, 교육적, 발달사적 자료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채 검사자료에 의해서만 해석이 내려지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무지해석의 가치와 적절성에 대한 상반되는 견해가 있는데 Exner⁸⁾는 다음과 같이 상반된 견해들을 요약하였다. 즉 Rorschach, Beck, Piotrowski 등의 연구자들은 무지해석의 유용성을 인정하며 단지 무지해석의 결과를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였다. Beck과 Piotrowski는 무지해석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Rapaport, Schafer, Klopfer는 이와같은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다른 검사자료에 따라 해석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Hertz는 다른 검사자료와 사회적, 교육적, 발달사적 자료와 연결되어 보다 현실적으로 의미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Exner⁹⁾는 이와같

표 1. MMPI의 결과

척도	원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T 점수평균
L	6.7	2.4	51.8
F	24.5	5.6	76.0
K	14.0	3.1	53.2
1	13.5	2.8	61.4
2	26.0	4.16	46.6
3	25.8	4.5	55.7
4	22.5	3.7	55.4
5	32.0	3.3	61.1
6	18.1	3.3	68.6
7	18.7	3.3	52.2
8	32.6	6.0	69.6
9	19.4	2.7	55.5
10	34.2	3.8	49.3

표 2. 로샤검사의 위치반응, 결정인반응의 평균

반응	본연구 대상자 (N = 12)	Exner의 비정신장애자 (N = 200)
R	21.2	21.6
W	5.70	7.10
D	13.30	13.40
Dd	2.90	1.10
S	-	1.10
P	3.50	6.70
M	0.80	3.20
FM	1.50	2.80
m	0.10	0.08
FC	-	3.20
CF + C + Cn	1.25	1.20
C' + C'F + FC'	-	0.60
T + TF + FT	1.49	1.40
Y + YF + FY	1.08	1.30
V + VF + FV	0.91	0.40
F	13.60	9.20
혼합반응(blends)	0.04	3.90

은 견해들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 로샤체계에서 무지해석이 해석 시작단계에서 개인에 대한 가정을 제공하며 종합적 해석단계에서 의미있는 기술을 정리하는 유용

표 3. 로샤검사의 체계적 분류

체계적 반응분류	본연구 대상자	Exner의 비정신장애자
Zf (Zd)	7.70 (-1.75)	7.30
Sum C	1.37	3.60
(EA/Ep)	(2.20/6.5)	
L	1.60	0.74
F+ %	45.20	91
X+ %	50.60	84
(위치반응+, o/v, -)	(44.5/55.5)	
A %	39.20	39.0
H + Hd	2.50	4.2
(L+/Lo/Lv/L-)	(0.9/8.9/4.2/7.9)	
(a/p)	(15/0.83)	

표 4. 로샤검사의 내용분류

내용반응 본연구 대상자 (N=12) R=21.2	
H = 0.83	Bl = 0.25
(H) = 0.83	Bt = 2.33
Hd = 1.66	Cg = 0.08
(Hd) = 0.66	Cl = 0.66
A = 7.58	Fi = 0.16
(A) = 1.25	Ge = 0.16
Ad = 1.33	Hh = 0.09
(Ad) = 0.33	Ls = 0.91
An = 1.41	Na = 0.60
Art = 0.25	obj = 0.25
Arch = 0.25	Cont = 6.25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로샤검사의 무지해석에 의한 연구는 성격의 기술, 임상진단의 연구뿐만 아니라 비교문화적 성격연구에서도 Abel (1942), Schachtel (1942), Oberholzer (1944), Kluckhohn 과 Rosenzweig (1949) 에 의해 사용되었으며⁸⁾ 그 결과는 대체로 효과적이고 긍정적이었다.

본 논문에서 개인별 심리학적 진단은 이와 같은 입장에 따라 MMPI, 인물화검사에 의한 보조자료가 이용되며, 단순한 사회, 교육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만 근본적으로 로샤무지해석에 따라 평가되어질 것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표 5 - 표 16 에 개인별 진단검사의 대략적 자료와 평가가 제공되어지고 있다.



그림 1-1



그림 1-2



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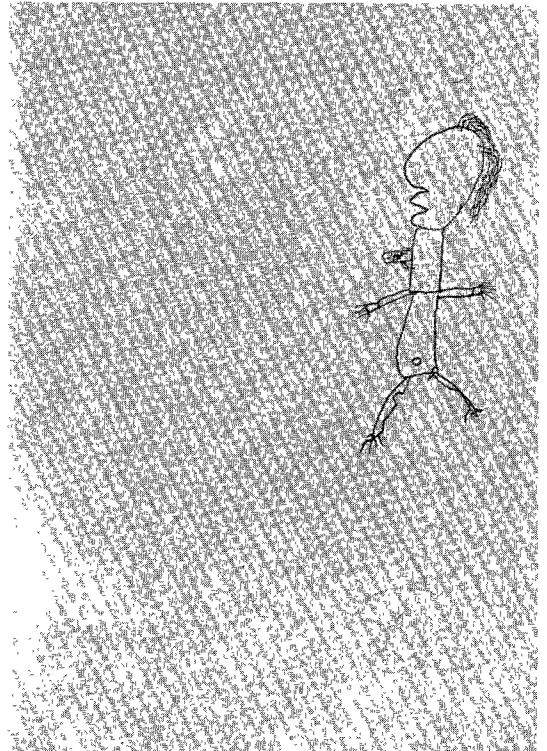


그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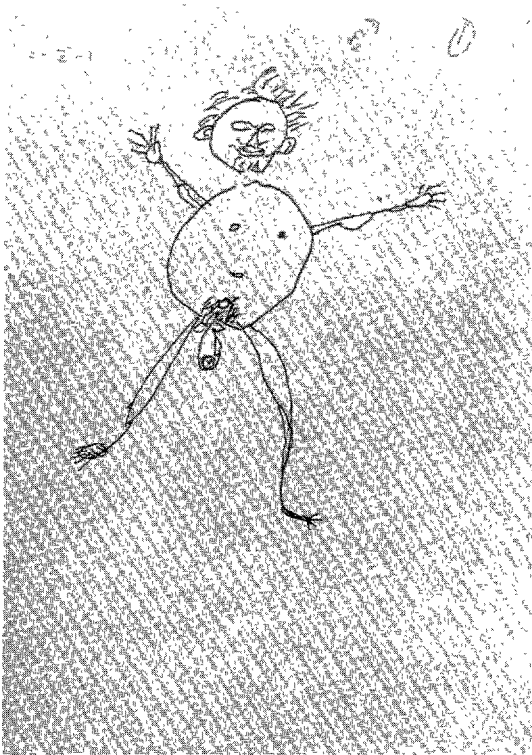


그림 3-1



그림 3-2



그림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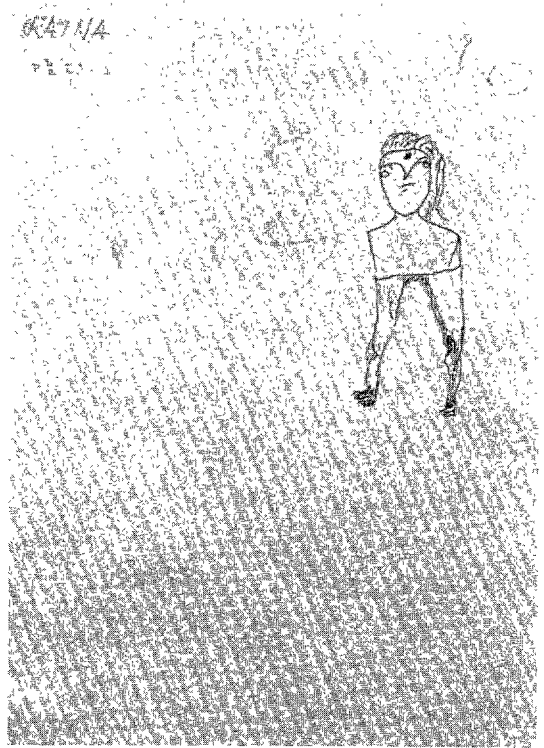


그림 4-2

2019. 04. 19.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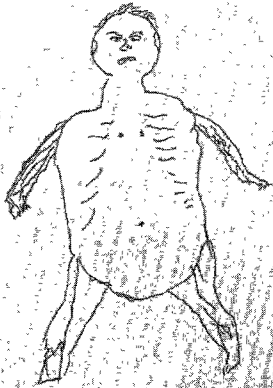


그림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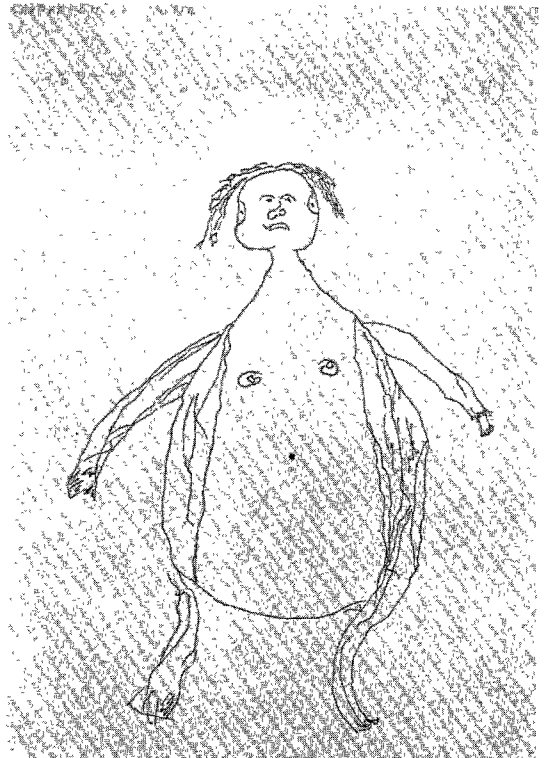


그림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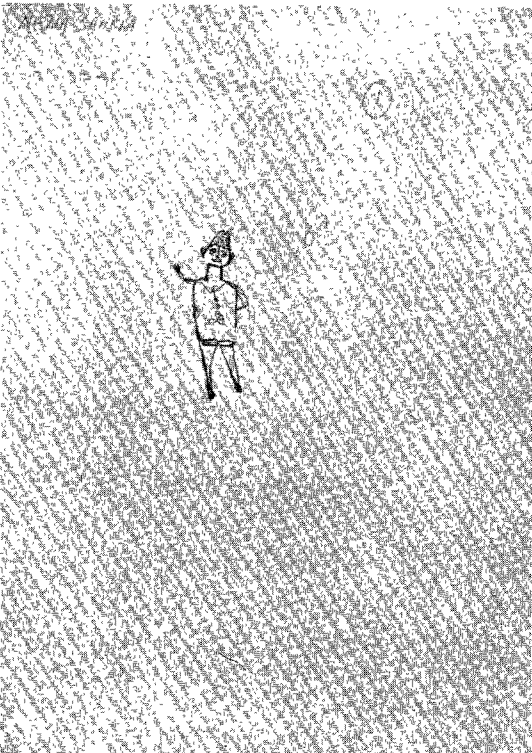


그림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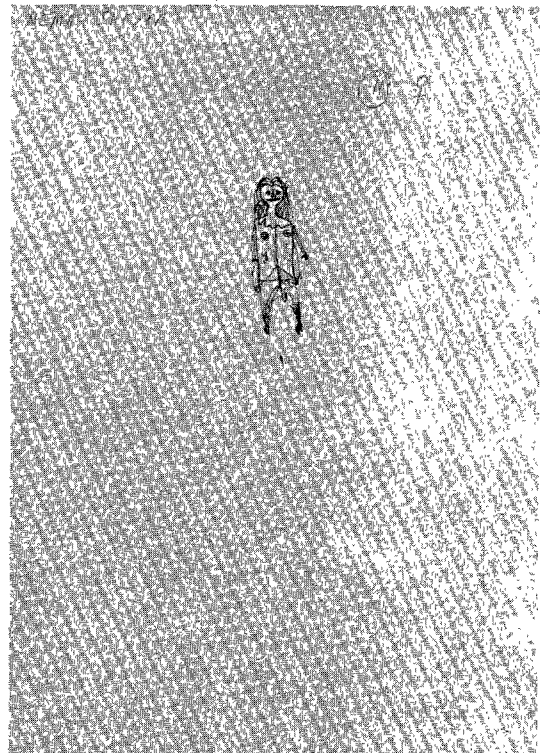


그림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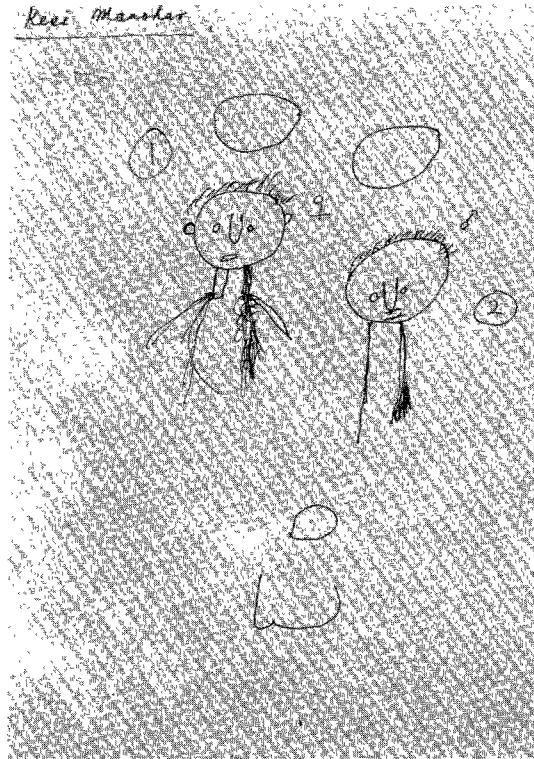


그림 7-1

Sante Shupa
그림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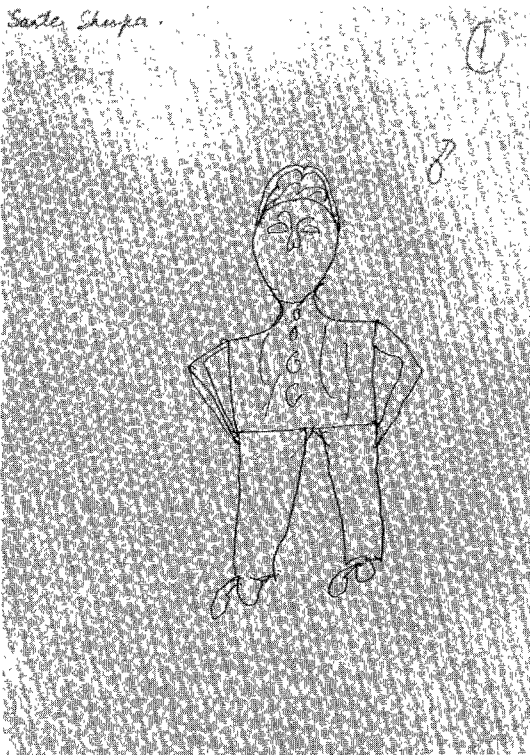


그림 8-1



그림 8-2

표 5. 남. 29. 중졸

	MMPI (T 점수 65 이상)	로 사 검 사 반 응	인 물 화 검 사
검 사 자 료	K 척도-66 Sc 척도-65	R = 36 Zf = 9 Zd = +1.0 P = 7 DQ + 2 EB = 3/2 EA = 5 o 20 eb = 3/5 ep = 8 v 7 FC/CF + C = 0/2 - 7 W/M = 6/3 W/D = 6/24 F + % = 56 H + Hd/A + Ad = 5/18 X + % = 66 H + A/Hd + Ad = 7/6	전체 인물묘사에서 뚜렷한 의곡 없음. 목생략, 옷의경계 불분명
검 사 결 과	<p>상황대 응방식 - 내향적, 외향적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유동적 상태</p> <p>정서 욕구 - 체계화 안된 스트레스상태, 인지통제가 낮은 중등적 정서 방출 가능성</p> <p>인지활동 - 독창적 인지접근증가, 융통성이 낮은 미성숙한 인지활동</p> <p>현실지각 - 심한 현실검증 장애는 없음</p> <p>대인접촉 - 관심과 능력 있으며, 비교적 의존적 대인관계 형성욕구 표현됨</p> <p>현실접촉 - 심한 철수는 보이지 않음</p>		

표 6. 남. 20. 무학

	MMPI (T 점수 65 이상)	로 사 검 사 반 응	인 물 화 검 사
검 사 자 료	F 척도-89 Mf 척도-73 Pa 척도-73 Sc 척도-73	R = 18 Zf = 8 Zd = - 2.0 P = 4 DQ + 2 EB = 1/0.5 EA = 1.5 o 11 eb = 8/0 ep = 8 v 0 FC/CF + C = 1/0 - 5 W/M = 4/1 W/D = 4/13 F + % = 66 H + Hd/A + Ad = 1/16 X + % = 77 A % = 88	전체인물묘사의 의곡이 뚜렷 성별순서 바뀜. 얼굴, 몸체, 팔의경계 불분명 턱, 눈썹, 눈동자생략. 목, 손생략. 허리 다리의 경 계생략 옷의생략과 나체의 모습. (그림 1)
검 사 결 과	<p>상황대 응방식 - 내향적, 외향적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유동적 상태</p> <p>정서 욕구 - 유용한 체제적 정서경험 낮고 즉각적 정서방출의 욕구는 높으나 매우 억압됨. 체계화 안 된 정서욕구가 높고 스트레스상태</p> <p>인지활동 - 종합적 인지 접근 낮고 미성숙한 인지활동. 관심의 협소화</p> <p>현실지각 - 정상적 수준에서 유지됨</p> <p>대인접촉능력 - 피상적 수준에 머무름. 이성관계에서 성적갈등의 가능성</p> <p>현실접촉 - 회피적</p>		

표 7. 남. 30. 무학

	MMPI(T 점수 65 이상)	로 사 검 사 반 응	인 물 화 검 사
검 사 자 료	F 척도-65 Pa 척도-71 Sc 척도-73	R =22 Zf =9 Zd = -5.5 P =2 DQ + 2 EB =0/4 EA =4 o 8 eb =2/3 ep =5 v 6 FC/CF +C =0/4 - 6 W/M =6/0 W/D =6/14 F + % =46 H +Hd/A +Ad =4/9 X + % =54 H +A/Hd +Ad =6/7 작화 (fabulized) 반응증가	전체인물의 묘사 외곡 뚜렷 신체부분 생략 많고 생명감 없는 인물 묘사 눈섭, 눈동자, 머리카락, 눈 생략 얼굴표정 묘사 희미 목생략, 팔, 다리, 손, 발 퇴화, 옷생략, 생식기강조
검 사 결 과	<p>상황대응방식 - 정서적 방출경향의 외향적 접근, 내적 사고활동증가의 내향적 접근 낮음. 정서욕구 - 체계적 정서경험이 상당히 있으나 체계적 활용경험이 불충분. 대인관계에서 유아적 접촉의 욕구 있으나 충족이 안됨. 인지활동 - 불충분하고 미성숙한 인지활동, 관심영역의 제한, 비기능적 인지활동 현실지각 - 정상수준에서 매우 낮은 수준. 현실검증장애 가능성 대인접촉 - 매우 제한되고 현실접촉이 유리되고 철수상태. 자아퇴행상태.</p>		

표 8. 남. 37. 무학

	MMPI(T 점수 65 이상)	로 사 검 사 반 응	인 물 화 검 사
검 사 자 료	F 척도 - 89 Hs 척도 - 71 Mf 척도 - 67 Pa 척도 - 76 Sc 척도 - 76	R =15 Zf =10 Zd = -1.5 P =2 DQ + 1 EB =0/1 EA =1 o 4 eb =1/4 ep =5 v 1 FC/CF +C =0/1 - 9 W/M =8/0 W/D =8/5 F + % =33.3 H +Hd/A +Ad =0/2 X + % =33.3 (Hd) =4 (Ad) =3	전체인물묘사의 외곡 뚜렷 인물의 크기 크지만 생명감 없음. 머리칼, 눈동자, 턱생략 몸체 불완전, 생식기 부분생략 팔, 다리가 가늘고 약한 모습
검 사 결 과	<p>상황대응방식 - 외향적 접근 경향성은 있으나 정서방출이 높지는 않음. 정서욕구 - 기능적 심리활동으로 이용되는 체계적 정서경험 극히 제한. 유아적 대인접촉 욕구 있으나 불안이 동반되는 무기력한 위축상태. 인지활동 - 인지의 비현실적 비약. 과도한 인지 구성활동, 비기능적 인지활동. 현실지각 - 대단히 부족하며, 정신증적 현실검증장애 대인접촉 - 현실적 접촉의 철수, 현실에서 유리되고 자아 퇴행상태.</p>		

표 9. 남. 40. 무학

MMPI (T 점수 65 이상)		로 사 검 사 반 응	인 물 화 검 사
검 사 자 료	F 척도-79	R =21 Zf =8 Zd = -4 P =3	전체인물묘사의 외곡 뚜렷
	Hs 척도-71	DQ + 2 EB =2/2 EA =4	비현실적 인물묘사
	Hy 척도-73	o 5 eb =5/6 ep =11	눈, 입, 콧구멍, 머리강조.
	Pa 척도-78	v 4 FC/CF +C =0/2	귀, 눈썹, 턱 생략
	Sc 척도-70	- 10 W/M =4/2 W/D =4/4 F + % =25 H + Hd/A + Ad =1/6 X + % =47.6 (H),(Hd) =2 (A) =3	몸채와 팔, 손, 다리, 발이 미숙한 인물묘사(그림 2)
검 사 결 과	<p>상황대응방식-내향적, 외향적 대응의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유동적 상태</p> <p>정서욕구-체계적 정서 욕구도 상당히 있으나 매우 높은 수준에서 원초적인 비체계적 정서욕구. 공격적 정서 충동 높고, 그러나 불안이 동반되는 무기력한 철수. 고통스런 긴장상태.</p> <p>인지활동-독특한 인지접근, 인지 구성활동 높으나 비기능적 인지활동</p> <p>현실지각-매우 낮아 현실감증장애 가능성</p> <p>대인접촉-피상적 관계 형성 수준에 머무름. 현실 철수.</p>		

표 10. 남. 30. 국출

MMPI (T 점수 65 이상)		로 사 검 사 반 응	인 물 화 검 사
검 사 자 료	F 척도- 89	R =20 Zf =10 Zd = -4 P =3	전체인물묘사의 외곡 뚜렷
	Mf 척도- 65	DQ + 1 EB =0/4.5 EA =4.5	신체부분의 생략보다 강조가 뚜렷.
	Pa 척도- 78	o 10 eb = 1/4 ep =5	강조-머리카락, 귀, 눈, 턱수염
	Sc 척도- 77	v 5 FC/CF +C =1/5	생식기, 배꼽, 가슴
	Ma 척도- 69	- 4 W/M =10/0 W/D =10/9 F + % =50 H + Hd/A + Ad =2/9 X + % =55 H + A/Hd + Ad =10/1	생략- 눈동자, 옷 전체적으로 미숙한 인물묘사 (그림 3)
검 사 결 과	<p>상황대응방식-정서 방출의 외향적 접근</p> <p>정서 욕구-체계적 정서 욕구 상당히 있으나 체계적 활용이 불충분. 대인관계 유아적 접촉의 욕구가 비체계적 수준에 머무름</p> <p>인지활동-과도한 인지구성활동, 비기능적 인지활동</p> <p>현실지각-정상수준에서 떨어져 있고 현실감증장애 가능성</p> <p>대인접촉-피상적 수준, 현실접촉 제한, 과도한 성 집착과 성적갈등</p>		

표 11. 남. 24. 중졸

	MMPI (T 점수 65 이상)	로 사 검 사 반 응	인 물 화 검 사
검 사 자 료	F 척도-69 임상척도 65 이상 증가없음	R = 30 Zf = 6 Zd = -2 P = 5 DQ + 0 EB = 0 EA = 0 o 12 ep = 0/2 ep = 2 v 3 FC/CF + C = 0 - 15 W/M = 5/0 W/D = 5/22 F + % = 35 H + Hd/A + Ad = 5/12 X + % = 40 H + A/Hd + Ad = 8/9 작화 (babulized) 반응증가 H = 0, Hd = 5 (H), (Hd) = 3	전체인물묘사 외곡 있음 눈, 코, 입, 생식기 강조 귀, 손, 옷, 목, 생략. 인물 크기 적음
검 사 결 과	<p>상황대응방식 - 매우 억압, 위축적, 정서방출이나 내부 사고활동 극히 결여 정서욕구 - 비체계적 욕구가 있고 유아적 대인접촉 욕구 억제상태 인지활동 - 불충분한 단순한 인지접근, 비기능적 인지활동 현실지각 - 대단히 낮고 현실검증장애 대인접촉 - 능력과 관심 결여, 현실철수, 퇴행적, 강한 위축상태지만 비현실적 행동화가 충동적으로 일어날 가능성 있음, 성적 집착,</p>		

표 12. 남. 25. 국졸

	MMPI (T 점수 65 이상)	로 사 검 사 반 응	인 물 화 검 사
검 사 자 료	F 척도 - 71 Pa 척도 - 68	R = 24 Zf = 6 Zd = -2 P = 4 DQ + 0 EB = 1/0 EA = 1 o 10 eb = 0/8 ep = 8 v 5 W/M = 5/1 W/D = 5/6 - 9 H + Hd/A + Ad = 3/9 F + % = 43 H + A/Hd + Ad = 7/5 X + % = 41.6	전체인물묘사의 외곡 뚜렷 머리, 얼굴, 몸체부분 강조 팔, 손, 귀 생략. 다리 약하고 짧고 전체 균형 과 모양이 불완전 (그림 4)
검 사 결 과	<p>상황대응방식 - 위축적, 정서방출 결여되고, 낮은 수준에서 내적 사고활동 접근경향 정서욕구 - 체계적 정서 욕구 낮고 비체계적 정서 욕구가 매우 높다. 유아적 정서 욕구가 있고, 긴장된 고통스런 정서상태로 머무름. 인지활동 - 구체적, 단순한 인지활동과 비기능적 인지활동 현실지각 - 매우 낮고 현실검증장애 대인접촉 - 피상적 수준, 현실철수 경향</p>		

표 13. 남. 47. 무학

MMPI (T 점수 65 이상)		로 사 검 사 반 응				인 물 화 검 사
검 사 자 료	F 척도-85	R=16	Zf=9	Zd = +0.5	P =4	전체인물묘사의 외곡이 심하 지는 않음 목, 몸체강조, 외부로 편음 팔, 다리, 사납고 공격적 자세 배꼽, 가슴강조. 여성의 모습 강조(그림 5)
	Pa 척도-76	DQ + 0		EB =1/2.5	EA =3.5	
	Sc 척도-81	o 4		eb =0	ep =0	
		v 3		FC/CF +C =0/2		
		- 9		W/M=8/1	W/D =8/5	
		F + % =30		H =0.(H) =1	Hd =4	
검 사 결 과		X + % =33.3		H + A/Hd + Ad =4/4		
		Afr = .77				
	상황대응방식 - 정서 방출의 외향적 대응					
	정서육구 - 정서 경험을 통해 내적 자원이 의미있게 활용됨					
인지활동 - 과도한 인지구성 활동, 전체적 인지접근, 미성숙하고 비기능적 인지활동,						
현실지각 - 매우 낮아 현실검증장애						
대인접촉 - 현실적 관계형성 결여, 현실철수, 성적집착과 성적갈등						

표 14. 남 24. 국졸

MMPI (T 점수 65 이상)		로 사 검 사 반 응				인 물 화 검 사
검 사 자 료	F 척도-81	R =20	Zf=9	Zd = -0.5	P =2	전체인물묘사의 외곡 적고 균형된 모습. 인물의 크기 대단히 적고 상반부 위치. 팔이 매우 약하고 감추어지 고 다리 약하고 발 생략 단추, 모자, 옷 강조(그림 6)
	Mf척도-67	DQ + 0		EB =2/4	EA =6	
	Pa척도-71	o 7		eb =1/7	ep =8	
	Sc 척도-65	v 6		FC/CF +C =0/2		
		- 7		W/M =6/2	W/D =6/10	
		F + % =60		H + Hd/A + Ad =4/7		
검 사 결 과		X + % =55		H + A/Hd + Ad =8/3		
	상황대응방식 - 정서 방출의 외향적 접근, 내적 사고도 동반됨.					
	정서육구 - 상당한 수준에서 체계적 정서 경험. 그러나 활용되지 않는 비체계적 정서 육구도 상당 부 분 남아 있고, 불안, 긴장상태의 가능성.					
	인지활동 - 독특한 인지 접근, 엄격하고 구체적 인지활동, 인지구성 활동 높으나 효과적 인지 기능은 다소 낮음.					
현실지각 - 낮으나 현실검증장애 없음.						
대인접촉 - 관심과 능력이 있음. 그러나 위축 경향도 동시에 있음.						

표 15. 남. 32. 국출

	MMPI (T 점수 65 이상)	로 사 검 사 반 응	인 물 화 검 사
검 사 자 료	F 척도- 67 pd 척도- 74	R =17 Zf =6 Zd = -0.5 P =3 DQ + 1 EB =0/6 EA =6 o 5 eb =1/9 ep =10 v 6 FC/CF +C =0/3 - 5 W/M =4/0 W/D =4/7 F + % =28.5 H + Hd/ A + Ad =0/4 X + % =47.0 (H) =2 (A) =2	전체인물묘사의 외곡 뚜렷 생략- 눈섭, 팔, 몸체, 다리 손, 발, 옷. 머리와 목만 부분적으로 그 려짐. 강조- 머리칼, 코. 여자가 먼저 그려짐 (그림 7)
검 사 결 과	<p>상황대응방식-정서적 방출의 외향적 접근 정서욕구-중등적이지만 체계적 정서욕구 상당히 높은 수준. 그러나 억압적인 긴장, 불안, 유아적 욕구도 상당히 남아 있음. 인지활동-독창적 접근. 미성숙한 인지활동, 인지기성활동 기능수준은 다소 낮은 경향 현실지각-상당히 낮은 수준, 현실검증장애 가능성. 대인접촉-능력, 관심결여, 현실접촉회피, 퇴행적, 성적접착과 성적갈등</p>		

표 16. 남. 20. 국출

	MMPI (T 점수 65 이상)	로 사 검 사 반 응	인 물 화 검 사
검 사 자 료	MMPI 결과 없음.	R =25 Zf =3 Zd = -0.5 P =3 DQ + 0 EB =0/4 EA =4 o 11 eb =0/8 ep =8 v 5 FC/CF +C =0/2 - 9 W/M =3/0 W/D =3/2 F + % =58.8 H + Hd/ A + Ad =1/11 X + % =60.0 H =1 (H) =2	전체인물묘사의 생략과 외곡 있음. 머리가 크고 어깨 강조. 눈동자, 입, 귀 생략. 팔이 약하고, 손 감추어지고 발이 불안정. 단추 강조 (그림 8)
검 사 결 과	<p>상황대응방식-정서적 방출의 외향적 접근 정서욕구-체계적 정서도 상당한 수준에 있으나 원초적인 비체계적 정서 욕구가 높아 불안, 위축상태 인지활동-인지기성활동 낮고 단순, 구체적이고 미성숙한 인지 현실지각-비교적 현실검증이 유지되는 수준 대인접촉-피상적 수준, 현실접촉의 회피 경향성</p>		

고찰

MMPI 결과는 F척도의 극단적 상승을 보이는 A형의 타당도 척도를 나타내며 임상척도는 6, 8 척도에서 중간상승을 1, 5척도와 3, 4, 9척도에서 가벼운 상승을 보이고 있다.

Graham¹⁰⁾은 F척도 T 65~79점 사이의 상승은 이탈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신념과 관계가 있으며 심한 신경증적 상태 또는 정신증적 상태와 연관되며 정신장애와 연관되지 않은 정서적 불안정, 불만, 우울, 반항적이고 고집스런 정서와 성격특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F척도의 극단적 상승은, Fowler¹¹⁾, Pearson¹²⁾ 등에 의하여 정신증적 진행이 시사되었고, 김재환¹³⁾ 등도 임상척도의 상승과 함께 정신병리의 단서가 된다고 하였다. 김영환⁴⁾은 F척도의 상승이 반드시 정신증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태도, 즉 환자 역할 부여에 따라 조작될 수 있고 심리적 상태, 증상일반에 대한 주관적 인식, 평가, 수용 및 병식의 정도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박경우¹⁵⁾는 타당도 F척도 상승의 A형이 낮은 연령과 상관성이 있고 8척도 상승과 5척도가 제외된 전체 임상척도의 가벼운 수준의 상승이 나타나지만 임상적 진단조건은 신경증이었으며 MMPI 결과와 임상진단과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타당도척도가 고려되어 임상척도가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임상척도들에서 T 점수 70 이상의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Marks와 Seeman¹⁶⁾의 16개 형태 분석, Graham¹¹⁾의 두점수 부호형, Dahlstrom¹⁷⁾의 다척도형, Gilberstadt와 Duker의 19개 프로파일형¹⁸⁾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평균 프로파일에 의해 개별적 진단 특징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형태분석을 해보면 8, 6형이 8/12의 수준에서 각각 T 점수 75, 74.7로 나타났다. Graham¹⁰⁾은 임상척도들의 하위척도가 임상적으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6척도 편집증척도의 하위척도는 피해망상적 사고, 지나친 과민성, 고지식함이며, 8척도 정신분열증척도의 하위척도는 사회적 고립, 감정 둔화, 인지적 자아 통제 결여, 정서적 자아 통제 결여, 불완전한 억압, 감각장애 등이다. Dahlstrom 등¹⁷⁾은 8-6형이 대부분 정신증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소수의 신경증장애자는 신체화증상보다 심한 우울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MMPI는 단일 검사로서의 해석상의 제한점

이 있으며 검사자료이외의 직접적 임상관찰의 중요성이 제안되었다^{14) 15) 19)}. 그리고 다른 검사와의 상관적 해석이 필요하다. 유재만 등²⁰⁾은 임상척도들의 T 점수 70 수준으로 정신증집단과 비정신증집단의 비교가 의의가 없었다고 하였다. 본 MMPI의 결과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때는 8-6척도의 상승이 의미있는 수준에 있으나 전체 평균을 평가하면 8-6척도, 1-5척도, 3-4-9척도가 의미있는 상승수준이 아니며 타당도 F척도는 T 70 점이상에 있다.

연구방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검사의 실시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Dahlstrom 등¹⁷⁾은 검사실시상황의 문제, 비전문가에 의한 검사실시, 검사자의 태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피검사자의 교육정도 특히 지능수준, 동기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횡문화적 연구를 위해 MMPI가 실시될 때 표준화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야 한다²¹⁾. Dahlstrom 등¹⁷⁾은 건강평가조사(Health opinion survey)에 의해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식의 정신건강 평가 척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이와 유사한 정서장애척도(Ed)를 제작하였고 이와같은 방식의 척도가 횡문화적 연구에서 표준화과정없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척도의 내용은 신체화증상과 정서장애에 제한된 내용임으로 다른 검사에까지 일반화 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제한점으로 본 MMPI 결과에 대한 결정적 해석을 내릴수는 없으나 F척도의 상승, 정신증적 척도들의 상승은 계속적인 비교문화적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해준다고 보여진다. F척도의 상승은 신경증이나 정신증의 지표가 될 수도 있으나 이탈된 사고, 신념체계와 연관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문화배경이 다른 피검사자 사이의 사고와 신념체계가 체계적으로 비교, 검토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야 F척도 상승의 의미가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F척도상승이 검사실시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심리검사는 검사자와 피검사자의 상호작용, 검사실시상황에 따라 반드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횡문화적 연구에서 이와 같은 변인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임상척도 8-6 상승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개별분석에서 나타나는 8-6척도의 상승은 정신증적 경향성 및 신경증적 장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개별분석에서 조차도 표준집단에 의한 비교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 검사의 실시에 있어서 반드시 표준화절차가 요구되지만 표준화절차가 없더라도

정신건강이나 정신장애가 평가될 수 있는 검사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Exner⁸⁾의 종합적 해석에 근거하여 본 연구대상자들의 심리적 작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위치반응점수(location scores)에서 W 반응의 감소, 위치반응의 발달수준평가에서 V, -반응의 증가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치반응특정만을 근거로 해석할 때 인지작용의 엄격함, 구체화, 미성숙함을 나타낸다. Exner⁸⁾는 W+반응의 증가가 창의적이며 지적인 인지작용의 결과라고 하였고, 따라서 W 반응의 감소와 전체 위치반응의 반응수준 저하는 단편적이고 구체적이며 미성숙한 인지작용의 결과와 연관시켜 볼 수 있다. 이는 Z, F+%, X+%와 결부시켜 볼 때 지지된다. 즉 Zf는 평균수준에 있으나 Zd가 -1.75로 기능적 수준의 인지활동이 낮아있음을 보여 주고 F+% 및 X+%가 낮아서 정확한 지각활동, 현실검증작용에서 제한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지활동의 경향성은 평범반응 P의 감소와 연관시켜 볼 때 통상적 인지활동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지지해주고 있다. 특히 F+%, Z+%, X+%는 Exner⁸⁾가 정신병리적 과정으로 나타나는 인지활동의 장애를 7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수준에서 떨어지고 있다. F+%는 정신장애의 활동을 나타내줄 뿐 아니라 긴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능력 및 현실검증력과도 연관된다.

결정요인점수(Determinants scores)는 지각과 인지활동이 더욱 정확하게 나타나며 이는 반응과정에서 일어났던 심리적 작용을 반영하며 이와 같은 심리적 작용은 전체 형태분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본 결과는 F 반응 증가, 운동반응 감소, 색채반응과 무색채반응 감소, 재질반응 유지, 통경반응 증가, 일반음영반응 감소, 혼합반응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F 반응이 높고 통경반응중 VF 반응이 높으며, CF 반응, TF, YF 반응은 평균수준에 있으며, 그외 M, FM, m 반응이 감소되고, FV, FC, FT 반응이 낮으며, C'+C'F+FC' 반응은 반응되지 않았고, 혼합반응은 매우 낮다. 체제적 점수에서 EA가 매우 낮고 ep는 높다. Beck, Klopfer⁹⁾에 의해 F 반응의 증가는 정서지연으로 해석되었고 극단적 증가는 방어와 위축의 지표가 된다고 하였고 Exner의 종합적 해석에서 지지되었다. 더욱 F 반응과 연관하여 L이 1.0 이상일 때 그 의미가 더욱 강조되며 정서의 위축, 경계성(guardedness)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본 결과에서는, 애정의 욕구를 나타내는 재질반응에서 TF 반응이 높고, 정서

의 반응성이 두드러지게 높지는 않으나 정서의 변동성, 충동적 정서경향을 나타내는 CF+C 반응이 평균수준이며, 긴장에 대한 비체계적 욕구와 정서가 나타나는 ep 반응이 높으므로 FM, m 반응에서와 같은 내적 충동성이 높은 원초적 충동성은 아니지만, 내적인 정서 욕구는 위축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정서적 욕구의 표현이 엄격한 심리적 작용, 억압작용으로 위축된다고 보여진다. 정서적 욕구가 M 반응과 같은 지적활동이 수반되는 상상적 사고작용에 의해 접근되어 행동화되거나 내적 사고활동으로 통제되는 대신, 방어적이고 위축적인 심리적 작용으로 억압되고 비체계적 욕구는 해결되지 않은 수준에 있고, 혼합반응, M, FM, m 반응에서와 같이 내적인 심리적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보다 단순한 심리적 활동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내성적 경향성은 있으나 통제된 생산적인 내성적 활동보다 잠재적인 파괴적 성질이 내포될 내성적 경향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FM+m, C+CF 반응과 관련시켜 볼 때 높은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이 대인관계에서의 애정의 욕구, 변동적인 충동적 정서경향성은 있으나, 강한 내재적 충동성이나 체계적 사고활동이 낮고, 심리적 활동의 체계적, 지적 접근이 낮은 단순하고 엄격하게 방어된 위축된 심리적 활동으로 나타나며 억압된 비체계적 고통스런 정서적 경험은 통제되지 않은채 남아있다. 이는 위치반응의 결과와도 일치되는 심리적 활동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Beck⁹⁾은 이와 같은 억압된 고통스런 정서가 현실에서의 철수를 유도한다고 하였다.

반응내용에서 보면 동물반응 A는 평균수준이지만 인간반응 H, Hd 반응이 낮으며 자연과 연관되는 식물, 풍경반응이 높고, 비현실적 인간과 동물반응이 높다. Duran⁸⁾은 낮은 H 반응이 사회적 접촉의 위축과 연관된다고 하였고, Molish⁸⁾는 (H), (Hd), (A), (Ad) 반응이 부정방어(denial)와 연관이 있고 현실세계로부터의 지나친 고립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Blatt 등²²⁾은 발달수준이 낮은 인간반응 즉 유사인간반응, 외곡된 인간반응, 수동적이고 움직임이 없고 부적당하며 비구체적이며 부정적인 인간반응은 정상인보다 정신장애자에서 높으며 정상인에서는 인간전체반응, 기능적으로 조화되고 명료하고 호의적이며 반응적 인간반응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반응내용의 제한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연반응과 연관되고 내용에 반응이 제한되고 있음은 관심영역의 제한과 지능의 연관성을 시사해주고 있다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성, 교육, 직업에서 제한된 분포를 보이고 있으므로 교육과 지능의 제한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려우며 앞서 로사검사에서 해석된 결과가 이와 같은 교육과 지능, 생활경험의 제한을 가져다 주는 직업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음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McGaughran²⁵⁾은 인지적 활동이 정신장애와의 상관성보다 지능과 교육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였고²⁶⁾, Leighton, Kluckhohn, Honigmann, Joseph, Murray⁸⁾는 문화집단에 따라 독특한 평범반응이 반응된다고 하였고, Exner⁶⁾는 정서위축과 방어의 심리적 작용의 효율성이 특정 문화적 배경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Blatt²⁴⁾는 투사적 검사에서 행동이 예견될때 개인의 심리적 과정만을 이해하여서는 부족하며 심리적 과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회적 배경과 연관시켜 이해되어야 하므로 로사검사에서 개인의 심리적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가 복잡한 사회적 행동을 예견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하였다.

인물화검사는 자아상의 투사로서 환경과의 관계 및 이상적 자아상이 표현되며, 임상진단을 위한 질병분류학적 평가보다 무의식적 심리적 특성과 외현적 행동에 근거한 개인의 성격특성 평가에 적합하며, 객관적, 형식적 평가보다 내용과 전체적 평가가 더 의미가 있으며 독단적 진단평가는 피해야 한다^{9) 25) 26) 27)}. Levy⁹⁾는 그림의 개별부분보다 부분들의 관계가 더 의미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인물화들은 Levy⁹⁾의 정신분석적 가설을 바탕으로 개별 부분들의 해석과 부분들의 관계의 해석이 자아상, 이상적 자아상, 환경과 자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되며, Hammer²⁸⁾에 의해 강조되는 전체 인물의 특징에 따른 내용분석이 시도될 것이다.

인물화에 있어서 작은 크기는 자아에 대한 부적감, 환경적 요구에 대한 열등감과 연관되며 지나치게 큰 크기는 환경적 압력에 대해 확대감이나 공격감정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⁹⁾. 또한 그림의 위치에서 중앙상부는 자아에 대한 불안정감, 중앙하부는 안정되고 정착된 태도와 연관되고, 윗편 위치는 내향적인 자의식과 오른편 위치는 반항주의적 적대감과 연관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수집된 인물화에서 크기가 작고, 중앙상부 위치가 많았는데 이는 자아에 대한 부적감, 환경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반응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인물의 동작이 전반적으로 나타나지만 활발하고 적

극적인 동작의 표현은 없었으며 기계적이고 생명이 없는 극단적인 움직임의 결여는 아니지만 동작이 나타나면서도 미미한 동작의 표현에 불과하였다. Levy⁹⁾는 동작의 강조는 활동성, 강한 동작에의 충동성과 연관되며 극단적인 수동성은 동작에의 억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본 인물화는 이와 같은 극단적 경우와 일치하지는 않으며, 전체 인물의 조화에 기초하여 인물의 움직임이 해석되어질 것이다.

머리와 얼굴은 자아개념의 중요부분이며 Machover²⁵⁾는 머리가 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신체 충동의 통제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기능을 나타내며 얼굴이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하였고 머리칼은 자아도취(narcissism), 동성애와 연관되며 유아적이며 퇴행적 성적 욕구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코는 생식기의 상징으로 강하게 강조되거나 긴 코는 남성적 주장과 성적 활력에의 소망을 나타낸다. 눈은 사회적 의사소통에 중요하며 눈동자의 생략은 Machover²⁵⁾에 의해 미숙성, 퇴행성, 자아중심성으로 해석되고 있다. 귀는 자세하게 그려진 경우가 드물며 강조된 경우, 환청이나 망상적 과민성 혹은 동성애적 갈등과 연관된다고 하였으나⁹⁾, 귀의 생략에 관한 해석은 내려지고 있지 않다. 저자의 임상경험에 의하면 귀는 현실접촉 기관으로 눈동자와 같은 의미로 그 생략이 해석되어 질 수 있을 것 같다. 입은 구강적 성적 충동과 갈등, 의존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⁹⁾ 인물화의 입이 강조되거나 특징적으로 그려지고 있지 않다. 입의 생략은 구강적 공격에 대한 죄책감과 연관된다. 턱은 힘과 주도권에 대한 사회적 상징을 나타내며, 강조된 턱은 자아무력감에 대한 강한 보상적 시도를 나타낸다. 목은 충동적 본능을 나타내는 신체와 지적 합리적 통제를 나타내는 머리와 연결부분으로 내적 본능적 충동과 지적 통제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목의 생략은 미숙성, 충동통제의 결여, 퇴행을 나타낸다.

본 인물화의 특징이 머리, 얼굴의 묘사가 불완전하였고 강조보다는 생략이 많았으며 특히 눈이나 코의 생략이 많았다. 이는 자아개념이 강조되거나 사회적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보여지며 약하고 무력하며 미성숙한 자아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성적 충동성과 활력과 연관되는 머리칼 및 코 부분이 생략되지 않고 강조되고 있는 반면 본능적 충동에의 지적 통제를 나타내는 목이 자아의 미성숙함을 나타내고 있는 점과 연관지을 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팔과 손은 Levy⁹⁾에 의해 신체의 접촉과 조정부분

이라고 해석된데 비해 Machover²⁵⁾는 자아발달과 사회적응의 지표로 보았다. 본 인물화에서 그려진 팔과 손은 대체로 발달수준이 낮은 미성숙함을 나타내는 모습이며, 위축경향을 나타내는 생략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리와 발은 신체를 버티게 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부분으로서 손, 팔과 함께 신체의 접촉기관으로 본 인물화에서는 다리와 발의 생략은 적으나 매우 약하고 불안정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다리 역시 몸과의 연결이 미성숙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의 옷의 묘사가 적고 나체로 그려지면서 직접적인 성기관의 표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에 대한 반항이거나 성적 갈등에 대한 의식적 자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유방은 강한 구강적 의존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⁹⁾. 본 인물화에서 성기관의 표현이 강조되고 나체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성에 대한 미성숙한 집착을 나타내고 강한 추구와 과시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세부묘사들이 이루는 전체 분위기는 자아발달의 미성숙함과 더불어 자아기능의 불균형을 나타내고, 자아 부적감이 보여지며, 현실접촉의 제한과 위축경향을 나타낸다고 보여진다. 특히 신체부분들이 생략되고 의곡되므로서 현실적이고 살아있는 분위기의 인물묘사가 적은 점은 자아발달의 미성숙함과 현실접촉의 제한을 강조한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점에서 현실적 자아상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능동적이고 자신이 있고 도전적인 경향이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과 같은 심리학적 검사의 결과들은 검사실시와 해석상의 제한점으로 결론에 이르는 어렵다. De vos³⁾는 비교문화적 연구에서 한 문화의 독특한 개념이 간과되고 연구자의 문화배경 특히 서양문화를 기준으로 하여 정신건강과 성격구조, 심리적 문제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일반적이며 한 문화에서 실제 존재하는 적응적 행동과 연구자에 의해 부여된 다른 문화에서의 적응적 행동 사이에 구별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치료과정도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비교문화적 연구의 성격진단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 한 문화내에서의 문화적 특징과 개인 성격의 관계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결 론

비교문화적 성격연구를 위한 심리학적 검사 사용의 문제점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비교문화적 성격연구는 심리학적 검사에 의한 개인의 성격체계 연구와 아울러 사회학적 연구에 의한 사

회적,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 성격과 문화의 관계 및 다른 문화집단의 개인들사이의 성격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개인의 성격집단을 위한 심리학적 진단검사는 검사도구의 표준화, 실시과정의 표준화, 채점 및 해석의 표준화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사실시과정에서 특히 투사적 검사의 실시 경우 검사자와 피검사자와의 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에 따라 검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통제되어야 한다.

3. 심리학적 진단검사는 로샤검사 및 주제통각검사 뿐만 아니라 인물화검사, 객관적 성격진단검사 및 지능검사가 함께 실시되어야 평가되는 내용의 수준과 범위가 다양해질 것이다.

4. 심리학적 진단검사와 아울러 개인면담, 꿈 및 행동평가의 자료가 보충될 수 있어야 한다.

5. 다양한 개인 성격진단검사들의 실용성과 한계점이 밝혀지고 이에 따라 연구되는 목적에 따라 검사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6. 기존의 심리학적 진단검사의 이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교문화적 연구를 위한 심리검사 개발이 요구된다.

7. 이 논문에서 실시된 심리학적 진단검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MMPI에서 F척도가 극단수준의 상승이 있고 8, 6척도의 중간상승, 1, 5, 3, 4, 9척도의 가벼운 수준의 상승이 있다. 로샤검사에서는 인지작용의 체계화가 낮고 미성숙하고 구체적인 경향이 있으며 정서반응은 억압적 경향이 있으며 욕구의 체계적, 통제적 성질이 낮다. 로샤검사에서 독특한 내용의 반응들이 표현되고 있어 내용분석이 문화의 차이가 보다 선명하게 밝혀질 수 있는 한 영역으로 기대된다.

인물화의 독특한 묘사는 문화의 차이 뿐 아니라 개인의 자아발달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해 주며 독특한 인물 묘사는 인물화검사의 진단가치를 지지해 주고 있다.

8. 이와 같은 결과들은 심리학적 진단검사에 의한 비교문화적 연구의 실효성과 가능성을 충분히 지지해 주고 있다.

- References -

- 1) Lazarus, R. S. : Patterns of adjustment, 3rd ed., McGraw-Hill Kogakusha, LTD., Tokyo,

- pp. 17-39, 1976.
- 2) Levine, R. A. : Culture, behavior, and personality, Aldine Publishing Co. Chicago, pp. 41-170, 1973.
 - 3) Arieti, S. :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2nd ed., Vol. 2, Socio-cultural psychiatry, Basic Books, Inc., New York, pp. 535-570, 1974.
 - 4) Maher, B. A. :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Vol. 7, Academic Press, New York, pp. 2-46, 1974.
 - 5) Kaplan, H. I. and Sadock, B. J. : Modern synopsis of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3rd ed., Vol. 1, Williams & Wilkins, Baltimore, pp. 485-503, 1981.
 - 6) Kolb, L. C. and Brodie, H. K. H. : Modern clinical psychiatry, W. B. Saunders Co., pp. 80-110, 1982.
 - 7) 정범모, 이정균, 진위교 : MMPI 검사법 요강, 코리아 테스트 센터, pp. 14-32, 1968.
 - 8) Exner, J. E. : The Rorschach-a comprehensive system, Vol. 1, John Wiley & Sons, New York, pp. 221-327, 1974.
 - 9) Levy, S. : Figure drawing as a projective test, in Abt, L. E. and Bellak, L. : Projective psychology, Knopf, New York, pp. 257-297, 1950.
 - 10) Graham, J. R. : The MMPI : a practical guid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pp. 33-62, 1977.
 - 11) Fowler, R. D., Jr. : Computer interpretation of personality tests : the automated psychologists, Comprehensive Psychiat. 8:455-467, 1967.
 - 12) Pearson, J. B. and Swenson, W. M. : A user's guide to the Mayo clinic automated MMPI program, Psychological Co., New York, pp. 33, 1967.
 - 13) 김재환, 원호택 : MMPI 프로파일에서의 인위적 반응, 신경정신의학, 17 : 459-464, 1978.
 - 14) 김명환 : 외상환자의 MMPI, 신경정신의학, 18 : 435-443, 1979.
 - 15) 박경우 : 신경증환자의 MMPI 타당도 척도형연구, 14 : 214-222, 1975.
 - 16) Marks, P. A. and Seeman, W. : An atlas for use with MMPI. Actuarial description of abnormality, in Wolman, B. B. : Clinical diagnosis of mental disorders, A handbook, Plenum Press, New York, pp. 311-333, 1978.
 - 17) Dahlstrom, W. G., Welsh, G. S. and Dahlstrom L. E. : An MMPI handbook, Vol. 1,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pp. 3-176, 1975.
 - 18) Gilberstadt, H. and Duker, J. : A handbook for clinical and actuarial MMPI interpretation, W. B. Saunders, Co., Philadelphia, pp. 24-97, 1965.
 - 19) 김중술 : 정신과 환자에 대한 임상심리검사 문제점, 가톨릭대학 의학부논문집, 18 : 149-166, 1970.
 - 20) 유재만, 김명환, 김중술 : 청년기 정신과 환자의 MMPI 반응, 신경정신의학, 8 : 37-43, 1969.
 - 21) 이현수 : 심리검사의 임상적 활동에서 문제점, 신경정신의학, 4 : 29-34, 1965.
 - 22) Blatt, S. J. and Schimek, J. G. : Norma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ical impairment of the concept of the object on the Rorschach, J. Ab. Psychol., 85 : 364-373, 1976.
 - 23) McGaughran, L. S. : "Conceptual area" analysis of object sorting behavior of schizophrenic and nonpsychiatric groups, J. Ab. Soc. Psychol., 49 : 183-195, 1954.
 - 24) Blatt, S. J. : The validity of projective techniques and their research and clinical contribution, J. personality assessment, 39 : 327-343, 1975.
 - 25) Machover, K. : Personality projection in the drawing of the human figure, Springfield. Thomas, pp. 346, 1949.
 - 26) 이수정 : 청년기 인물화 검사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3 : 454-465, 1974
 - 27) 정희연 : 한국에서의 도시 및 농촌아동의 신체상비교연구, 신경정신의학, 15 : 77-91, 1976.
 - 28) Wolman, B. B. : Clinical diagnosis of mental disorders, a handbook, Plenum Press, New York, pp. 97-332, 1978.